

제5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토론자료집]

일 시	2015년 10월 23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15분
장 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공동주최	대한범죄학회·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한국교정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아동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한국청소년학회
주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여성가족부

목 차

제 1 주제 학교적응

- 1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1
• 조영일(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2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3
• 방은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3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와의 차이 및 방임적 양육태도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6
• 이경희(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4 유아기 기관교육경험이 학령기 주관적 학습경험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8
• 최종진(한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제 2 주제 정서발달

- 1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추이 변화 연구 11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행복감 인과관계 분석 12
• 안권순(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3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시간이용차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5
• 하혜숙(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4 신체적 건강상태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17
• 고정은(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제 3 주제 사회/공동체 의식

- 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19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2 청소년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설명 변인 탐색 21
•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 3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종단 연구 24
•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4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26
•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실장)

제 4 주제 휴대폰/인터넷 이용

- 1 분할합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중단적 변화 탐색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 미시체계적관점에서의 청소년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 휴대폰 의존의 매개효과
 검정 28
 • 김옥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3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부모, 또래,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탐색 30
 • 성미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 4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주관여의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32
 • 임선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제 5 주제 청소년 비행

- 1 저소득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좌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2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발달계적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34
 • 오승근(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과 부교수)
- 3 진로조망에 따른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행동 변화에 대한 중단연구 37
 • 배천웅(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4 청소년 최초 비행 요인에 대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40
 •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제 6 주제 청소년활동

- 1 체험활동, 사회성적 및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43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2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중단연구
 •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 청소년기 팬덤 활동 변화의 잠재계층 도출과 영향요인 검증 45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 4 청소년기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 학교적응, 삶의 만족의 중단연구: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47
 • 김선아(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행동 감소 효과 분석 49
 • 박일수(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제 7 주제 또래/친구 관계

- 1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KCYPS)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52
•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2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54
•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팀장)
- 3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56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4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58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 8 주제 부모/가족관계

- 1 초중고생의 수면시간이 부모양육태도의 매개를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60
•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방식과 매개변인과의 관련 연구 62
•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3 자율성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각된 유능감을 매개로 청소년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64
• 최새은(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 4 아동학대 재발생 학대유형과 관련요인 66
• 조미숙(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68
• 박옥임(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의 토론문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들이 학교장면에서 경험하는 적응의 변화 형태를 검증하였다. 이와 동시에 학교적응의 변화형태(즉, 초4의 학교적응 수준, 초4에서 중2까지의 학교 적응 변화율)에 변수들(자아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부모 감독, 부모자녀관계, 성별)이 가지는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기여점은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 양상을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적응은 점차 감소하였다. 초기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업성적이 강조되고 경쟁이 증가하면서 학교적응에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적 요인과 부모 및 가족 요인이 학교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에 위험요인(risk factor)이었다. 이에 반해서, 자아탄력성, 부모감독,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적응에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논점이나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종단자료의 분석에서 전통적인 방식(예,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비하여 가지는 장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측값의 처리, (선형 혹은 비선형) 변화 형태의 검증, 개인내 분산과 개인차 분산의 추정 및 예측 등이 잠재성장모형이 가지는 장점이다(Bollen & Curran, 2006)

둘째, 학교적응의 변화 형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는 변화 모형과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선행연구(김태균, 2008; 문은식, 2003; 이희정, 조윤주, 2010)는 2차 변화 함수를 지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차 변화 모형이 검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연구에 포함된 측정시기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변화 형태로는 Piecewise 모형들 검증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예측변수들과 학교적응의 성장 요인(growth factor)간의 예측 및 결과의 관계성의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학교적응의 성장요인의 예측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적응의 결과변수로 보고한 다양한 선행연구(오영경, & 이형실, 2010)과는 비일관된 모형일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측정모형의 설정이 부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을 가정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원인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학교생활적응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의 결과변수로 설정되는 형성적 측정모형(formative measurement model)을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예측변수들이 측정된 조사년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결과에서 보고된 결과들이 논의에서 보고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함의(implication)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다.

일곱번째, 부정확한 연구 결과의 해석이 제공되어 있다.

- 1) 연구결과에서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기준에 대하여 기술하고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학교적응의 변화 모형들에 대한 적합도 검증의 추가가 필요하다. 특히,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간의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무조건화 잠재성장모형의 결과에서 초기값과-변화율의 공분산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다.
- 4) <표 5>에서 제시된 결과의 해석이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서, 자아탄력성이 변화율에 가지는 효과(회귀계수)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 5>의 결과에 근거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감소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하였다(15쪽 7줄~9줄).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부적절하다. <표 4와 5>에 보고된 결과가 기초하면 학교적응 변화 모형은 식 (1)과 같다.

$$\text{학교적응} = 3.08 - 0.03(\text{학년}) \quad \text{식 (1)}$$

그러므로, 매년마다 학교적응정도는 0.03만큼 감소한다. 자아탄력성이 변화율에 가지는 효과는 식 (2)와 같다.

$$\text{변화율} = -0.03 + 0.068 * \text{자아탄력성} \quad \text{식 (2)}$$

자아탄력성이 1단위 증가하면 변화율은 0.038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1단위 증가하면 학교생활적응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기간동안에 감소하는 대신에 증가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태균 (2008). 학교적응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자아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69-188.
- 문은식 (2003). 청소년의 애착 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1(3), 349-369.
- 오영경, &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51-64.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 **청소년연구**, 17(2), 253-278.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Vol. 467). John Wiley & Sons.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인과관계연구에 대한 토론

방은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들은 그 동안 학교생활적응이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교생활부적응은 이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초등 4년에서 중 2까지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발표자료는, 이 시기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라는 변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토론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연구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변인의 성격을 나타낸 구성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업성취도는 실제로 패널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낸 것인가?”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수집된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그 결과 연구자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세과목에 대한 패널의 주관적 평가로서(잘했다, 못했다 등), 이는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학업성취도’라기 보다는 ‘주관적 학업성취감(혹은 학업 만족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라기 보다는 학교생활적응, 주관적 학업성취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주관적 학업성취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매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가 아닌 ‘주관적 학업성취감’의 효과와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규명한 변인들의 효과가 언제까지 안정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가?”

그림 2를 보면,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의 효과는 5차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초등 4-중 2) 계속해서 다음 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면 중 2때까지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면 중학교에서도 높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으면 중학교에 가서도 이러한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안정적인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기에 학교생활적응력과 학업성취도 및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아동기 동안 이러한 요소가 구축되지 않으면 추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안정성은 보다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초등 4학년부터 중 2까지의 상태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수행에 대한 부담이나 몰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등학교나 그 이후 대학에서 이러한 안정성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에도 시간적 제한을 두고 진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세변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이다.

“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의 필요조건인가? ”

그림 2를 보면, 중 2의 학교생활적응엔 이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가 원인이 되어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는 이전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업성취도가 원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이 원인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그리고 학업성취도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업성취도가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 두 변인의 효과를 나타내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학교생활적응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관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안녕감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업성취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나, 주관적으로 안녕감을 느낄 때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된다

는 것이며, 주관적으로 안녕감을 느끼려면, 먼저 학업성취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¹⁾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업성취도(주관적 학업성취감)임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이 두 변인들과 각각 양방적 인과관계에 놓여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와 주관적인 안녕감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해 만족감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주관적인 안녕감을 높여서,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더 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와 같은 결론을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공감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선 주관적 학업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본격적으로 대학입시준비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진학 후, 주관적 학업성취감을 높이는 전략이 보다 더 요구될 것이므로, 이 세 변인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발달단계와 학업성취도에 따라 ‘주관적 학업성취감’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실제로는 주관적인 학업성취감을 나타내므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위해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부모와의 차이 및 방임적 양육태도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이경희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양부모가족과의 차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방법과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분포의 편파이다. 연소득은 4,000만원 미만까지의 비율이 양부모는 32.7%인데 반해 한부모는 83.2%로 한부가족 대부분이 양부모보다 낮은 소득수준에 속해 있으며, 한부모와 양부모 간 욕구소득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상당수준 열악하다는 사실은 다른 결과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범주	빈도(%)		합계 N=2,195
		한부모 N=249(11.3)	양부모 N=1,946(88.7)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108(43.4)	75(3.9)	183(8.3)
	4,000만원 미만	99(39.8)	560(28.8)	659(30.0)
	6,000만원 미만	29(11.6)	700(36.8)	729(33.2)
	8,000만원 미만	3(1.2)	337(17.3)	340(15.5)
	8,000만원 이상	10(4.0)	274(14.1)	284(12.9)

특히, 연구자의 두 번째 연구결과에서 한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양부모의 경우 경제적 수준은 방임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한부모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구조의 변화라기보다는 가족해체로 인한 경제적 소득의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제적 결핍 관점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일 수 있다(표1). 즉 이결과를 한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한부모는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여 자녀의 일상생활의 관리 감독이나 교육적 관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한부모가족의 편파된 경제

적 수준에 일차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추가적 분석을 통해 동일한 경제적 수준에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전체 표본 중 하위소득자만 추출하여 방임적 양육태도, 정신건강,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표 2 연구대상자 중 하위소득자

구분	범주	빈도		합계 N=842
		한부모 N=217	양부모 N=635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108	75	183
	4,000만원 미만	99	560	659

유아기 기관교육경험이 학령기 주관적 학습경험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최종진

(한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들은 기관을 통한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통한 양육이 우리나라 양육방법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유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양육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관을 통한 양육의 효과성은 향후 육아정책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한 양육의 효과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로 첫째, 유아기의 유아교육기관 학습경험은 학령기 주관적 학업성취 및 적응행동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유아기의 유아교육기관 학습경험은 학령기 주관적 학업성취 및 적응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시하여 시의 적절하게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연구주제를 명료하게 잘 제시하였다고 본다.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종단연구 1, 2, 3, 4,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6,60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고 2010년 16개 광역시·도의 초1, 초4, 중1의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표본 수 할당하고 조사대상 학교 수는 한 학교 당 한 학급씩,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순한 횡적 연구가 아니라 5년 동안의 자료를 종적으로 추적한 연구로 의미 있으며, 영향력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균차이 검증, 다층자료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학령전 유아교육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14번 문항 ‘이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6개월 이상 다닌 보육 및 교육기관(주중 매일 3시간 이상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학령전 교육경험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학령전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이 40명, 있는 집단이 2302명으로 나타났는데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럴 경우 등분산이 가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학령기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측정도구로는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을 변인화하고 설문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나,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을 적응행동의 측정요인으로 사용하게 된 이론적 분석과 측정도구의 선정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또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아쉽다.

우울의 변인화를 위해 10개의 문항을 역코딩하여(①→④, ②→③, ③→②, ④→①), 합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역코딩 방법이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한다(①→⑤, ②→④, ③→③, ④→②, ⑤→①).

주관적 학업성취 변인화를 위해 5개의 문항을 역코딩하여(①→④, ②→③, ③→②, ④→①), 합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이것 역시 역코딩 방법이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한다(①→⑤, ②→④, ③→③, ④→②, ⑤→①).

유아기 기관교육경험이 학령기 주관적 학습경험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령전 기관교육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주관적 학업성취 또는 적응행동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선효과의 분산을 살펴보면, 초기 학업성취와 성장속도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chi^2 = 9337$, $\chi^2 = 3316$, $p < .05$).

셋째, 조건부 모형의 분석 결과 주관적 학업성취(π_{0i})는 학령전 기관교육경험($t = .32$, $p > .05$)과는 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 속도(π_{1i})도 학령전 기관교육경험($t = .425$, $p > .05$)과는 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조건부 모형의 무선효과의 분산을 살펴보면, 주의집중과 성장속도(각각 $\chi^2 = 8149$, $\chi^2 = 3403$, $p < .05$), 공격성과 성장속도(각각 $\chi^2 = 5612$, $\chi^2 = 3375$, $p < .05$), 사회적위축과 성장속도(각각 $\chi^2 = 7842$, $\chi^2 = 3626$, $p < .05$), 우울과 성장속도(각각 $\chi^2 = 5687$, $\chi^2 = 3606$, $p < .05$)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건부 모형의 분석 결과, 주의집중($t = -.14$, $p > .05$), 공격성($t = -.32$, $p > .05$), 사회적위축($t = -.98$, $p > .05$), 우울(π_{0i})($t = -1.1$, $p > .05$)은 학령전 기관교육경험과는 그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유아기 기관교육경험이 학령기 주관적 학습경험 및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한 결론 및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기관학습경험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주관적 학업성취 및 적응행동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층자료 분석을 통하여 유아기 학습경험 집단의 주관적 학습경험, 적응행동의 평균값이 높았는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유아기 기관학습경험은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 및 적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의 효과성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을 통한 학습경험이 학령기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한 점과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양육방식이 긍정적인 방식임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의 효과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즉 통계적으로 무의미한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에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문화 환경 등을 변인으로 설정해서 함께 분석했다면 통계적 유의미성도 달라졌을 것이며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추이 변화에 대한 토론편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 사회로 이행중인 한국의 현실적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한 같은 학생의 경우, 중학생 때와 고등학생 때의 부정적 정서와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는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주의집중,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가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12년~2014년 3년간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작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년 혹은 교급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특히 여자청소년들 보다는 남자청소년들에게서 경향이 두드러져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정서가 다문화수용성의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등 및 고등학교 연령대에는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부정적 심리사회적 요인(우울, 불안 및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 등)의 수준이 높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 중 남녀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특정 정서가 다문화 수용성 감소에 특정화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정서를 특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추후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신다면, 누스바움 이 언급한 반다문화 정서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주요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족 변인(사회경제적 변인)을 배경변수로 투입하거나 청소년들의 성적, 변수 수준 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에서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무엇보다 더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교사-학생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증대 할 수 있는 교육 내지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행복감 인과관계 분석

안권순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국립국어원, 1999)’의 사전적 정의로, 행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이자 최상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Wilson(1967)은 행복을 주관적인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정의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성이나 지능과는 관계없이, 젊고, 건강하고, 교육받고, 돈이 많고, 외향적이며, 걱정 없고, 낙관적이며, 종교를 가진,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Diener, Lucas, & Oishi, 2002). 하나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포괄적인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요인이다. 다른 하나는 흔히 안녕감(well-being)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안녕감은 세 가지의 하위 요인 즉,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적 정서경험이 많으며 부정 정서경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Diener, 2000). 결국 행복이란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조건이 합쳐져서 형성되는 느낌으로 규정되며 행복감으로 측정된다.

행복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행복감 인과관계 분석**’ 연구를 해주신 박수란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란 교수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의 발표가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의 긍정적인 변화와 바람직한 교육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이에 토론자는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행복감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첨언 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과거 연구에서 사용된 행복 관련 척도들은 일반 성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들이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둘째,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행복감 측정도구는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총체적 행복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셋째, 가능한 한 포괄적인 복수문항을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 즉,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자신에 대한 평가, 삶의 전반적 만족, 사회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복은 절대적이기 보다는 상대적이며 따라서 행복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질적 내용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극복, 삶의 목표, 자기성장이 행복감의 내용이며 관련 속성이라고 하였다. 결국 행복감은 주관적인 안녕감이지만

이러한 안녕감은 신체적 생물학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강우석 감독, 1989)’에서처럼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교실, 성적이 바닥인 봉구(허석)와 천재(최수훈)는 각각 은주(이미연)와 양호 선생님을 짝사랑한다. 집이 어려운 창수는 어머니를 도와 청소 리어카를 끄는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은주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 거린다. 은주는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부모님의 집착 때문에 성적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순수한 마음의 봉구에게 끌린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야외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는 은주와 봉구, 그러나 다음 시험에서 은주가 7등으로 밀려나자 그녀는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다. 은주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교실 은주의 책상에는 꽃 한 송이가 놓이고 영구차가 학교를 도는 가운데 봉구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린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학생 본인은 물론 학생의 부모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강한 이유는 자신이 하지 못했던 공부를 자녀만큼은 꼭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녀의 지위가 자신과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열이 높아 학벌이 우세해지면 자녀의 학벌에 따라 부모의 신분도 수직상승한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일류대학 합격이 곧 신분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시험 부정은 예사이고 시험문제 유출로 SAT 테스트가 전격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잘 사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과 교육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잘 사는 것’의 정의가 그야말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경쟁사회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비정한 경쟁의식에 너무 몰입시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

다음은 전교 1등 아이의 자살 이야기입니다.

“제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3년 전 전 경북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고1 학생이 자살을 암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 학생은 아파트 20층 옥상으로 걸어 올라가 옷과 신발, 휴대전화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 학생은 어머니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학생이 올라간 20층 아파트의 계단은 또 얼마나 멀었을까? 그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또 얼마나 아득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는다고 했을까, 라는 생각에 먹먹함이 앞선다. 이보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문장이 있을까? 유언이 되어버린 이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학생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이들의 유언은 이전에도 수없이 있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흘려버리거나, 그때만 숙연했다가 다시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 이를 남의 일로 치부하며 애써 귀를 막고 눈을 감아온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건 루저들의 비겁한 변명이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와 봉급은 성적순이다”라는 비아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비인간적 인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은 없을 것이다. 세계 최장의 정규 학습시간도 모자라 세계 최장의 사교육 시간을 바치고도 우리 학생들은 “요즘 아이들 공부 안 해서 큰일이다”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 안 해서 큰일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입시지옥은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범위를 확장했고, 무한경쟁의 지옥은 카이스트 대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로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학교 폭력 문제,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덜 중요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중 훨씬 많은 아이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과 입시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학생 자살에 대해서 전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 입시지옥의 문제, 학벌사회의 폐단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미래의 나라에서 살고 여행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 나에게 꼭 맞는 짝을 찾게 되면, 아이가 다 크고 나면, 하지만 대개는 자신이 기다리던 일이 일어난 후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들을 만들어냅니다. 승진을 하고 나면, 첫 아이를 갖고 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얻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미래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일류대학과 일류직장, 일류자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은 얼마나 될까?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지 말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 지지 않을까?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시간이용차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하혜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상담자들이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해오던 명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상담자들은 상담 현장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모든 부모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첫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시간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시간이용에 차이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부모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한 환경인지 보여주고 있다.

2. 연구방법

패널데이터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연구문제에 적합하도록 자료를 변환하여 분석에 적용한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연간가구소득을 욕구소득비로 변환하여 구간설정을 함으로써 비교가 용이하게 하였고 시간이용에 있어서도 동일의미의 활동을 병합하고 가족구조 등을 비교가능하도록 구분한 점 등이다. 또한 패널데이터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GEE분석을 사용한 점 등이다.

3. 연구 결과의 함의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소득 집단에 비해 저소득 집단의 청소년들이 TV시청, 게임 및 오락, 친구와의 놀이, 컴퓨터 이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부모 가족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모의 지도감독 부재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행동은 정체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러한 문제행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치정체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치정체감은 학대의 결과로 인한 것인데, ‘학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학대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능동적 학대 또는 의도적 학대와 수동적 학대 또는 비의도적 학대라는 것이다. 첫 번째 형태의 학대인 능동적 학대는 언어, 정서, 신체적으로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는 행위이다. 주로 신체폭력, 성폭력, 언어적 폭력

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형태에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의 의도적 학대는 학대하는 사람이나 학대당하는 사람 모두 학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형태의 학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이다. 즉, 부모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문제로 아이들을 적절히 보살필 수 없어서 방치나 방임하게 될 때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이처럼 학대는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는 행위와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을 줄 수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밥만 먹고 크는 게 아니다. 정서적 자양분이 필요하다. 무섭고 두려울 때 안정을 줄 수 있고 보해해줄 수 있고, 자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자신의 한계에 함께 울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으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줄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잠재력을 인정해 주고 일깨워 주는 부모가 필요하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적인 정서적 필요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지 못할 때 아이들은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환경은 삶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비록 부모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 필요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부적절한 환경 속에 오랫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수치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수치정체감(shame identity)이란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말한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냥 사건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러한 사건이 일반화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수치스러운 사건이 존재에 대한 규정으로 보편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치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 부끄러운 존재, 오점이 있는 존재, 더럽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수치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fear)을 갖게 된다. 자신에겐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비밀이 있고, 오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통제(control)의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이로 인해 더욱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통제의 문제는 생활 전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 중독 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문제나 TV 시청시간이나 게임 및 오락시간, 컴퓨터 이용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통제와 관련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연구문제 2에서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저소득으로 인한 부모의 지도감독 부재의 결과가 학대로 작용하고 학대로 인해 수치정체감이 형성됨으로써 그 결과로 행동통제의 문제로 이어지는 매개의 과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고경은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청소년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심리 및 정신적 요인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의 신체건강요인에 초점을 둔 실제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관련 현장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자는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와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연구의 제목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분석내용은 교차분석으로 영향을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청소년 자살생각 변수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 질병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교차분석을 실시하더라도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가나 BM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의 유무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차분석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면 더욱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분석을 통한 검증이 보완된다면 연구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결과분석에서 제시된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자살생각”에 대한 그림과 “BMI-자살생각” 그림 비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의 비만과 BMI 모두 비만일 경우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MI의 경우 정상과 과체중/비만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정상체중임에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주관적 평가를 한 학생들과 남학생에 비해 자신을 비만으로 평가하는 여학생들과 관련한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결과에 따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 결론부분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 감소와 관련한 교육 및 관리도 성별, 질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로 끝나고 있어 청소년의 신체건강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분석 결과에 따른

실제적 제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청중에게 연구자로서 본 연구의 진행과 분석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주로 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둔 시선을 신체적 건강으로 끌어내 균형있게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인 우울과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상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여부를 탐색해 봄으로 변수간의 분명한 관계를 확인하고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논의는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이라는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공동체 의식 함양의 중요성과 또 그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향후 시민교육의 방법론에서 교우관계 증진은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전개과정과 논의 및 결론에 대하여는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지만, 몇 가지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다음의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공동체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물론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에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제 이론과 연구 분석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일부 소개하긴 하였지만,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이유와 배경에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공동체 의식, 또는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동체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 논문에서 주로 인용한 해외 문헌들의 경우, 공동체 의식을 *sense of community* 라는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학자들에 따라서 지역사회 인식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즉, *community*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이기도 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 설문지 문항이 물론 공동체 의식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영역별로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community*를 지역사회(또는 동네)로 해석할 경우, 연구자가 공동체 의식으로 선택한 문항들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제시될 때, 연구자가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택한 문항에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연구자가 선택한 공동체 의식에 관한 문항 외에도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문화 공동체 인식에 관한 부분도 공동체 의식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 중에는 다문화 인식이나 다문화 수용성, 또는 글로벌 시민성의 측정으로도 가능한 문항과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조작적 정의가 제시될 때,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성립과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관계성 중, 교우관계가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주는 새로운 학문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관계성, 다시 말해, 긍정적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모든 발달 영역과 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우관계 중, 특히 어느 부분이, 공동체 의식의 어떤 문항에 해당하는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양적이나 혹은 질적인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또 패널 설문지 문항 중, 공동체 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우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성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가도 궁금하다. 이는 연구의 배경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변인으로 특히 교우관계가 논의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분석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교우관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의 배경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09년 한국도 참가한 국제 시민성비교연구(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09)에서 청소년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 참여에 해당하는 변인은 조사가 되었지만, 교우관계는 해당되지 않았다. 교우관계 자체가 청소년이 속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도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연구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긍정적인 교우관계 개발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토론문을 마친다.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설명변인 탐색』에 대한 토론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2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시기동안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변화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유형을 보이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청소년들의 다양한 변화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그러한 다양한 변화유형들을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있고 학술적으로도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특히 개별화, 개체화, 분절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속에서 청소년들 역시 우리의식, 공동체의식이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고, 개인화된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소셜시킬을 향상시킬 기회가 현격히 감소되면서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의식 함양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감안할 때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s)역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절한 분석방법이라 생각된다. 잠재성장모형은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 두 개의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무조건모형은 청소년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할 수 있고, 조건모형은 공동체 의식의 개인적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변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문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토론자의 자격으로 이 연구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몇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도 공동체의식이 언급되고 있고,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무엇인지 개념이 명쾌하지 않다. 이 논문의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불명확하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론적 배경의 첫 번째 소제목인 “공동체의식의 개념과 종단적 변화”에서 공동체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재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논문의 연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논문의 논점을 흐리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들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고교특별활동의 민주적 운영이 민주적 정치태도를 증가시킨다는 내용, 학생회 참여와 투

표참여 경험이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내용, 시민참여호라동이 시민지식과 미래투표의도를 증가시킨다는 내용들은 이 논문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연구문제와 무관한 내용들이 본문에서 발견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리뷰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오로지 공동체의식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논문에서 오타자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연구방법의 연구대상에서 연구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연구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1, 2, 3, 4,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 2, 3, 4차년도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 방법에서는 이 연구의 종속변수가 마치 “학교적응”인 것처럼 진술되어 있는데, “학교적응”은 “공동체의식”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부분에서도 조건모형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때 “중학교 2학년시기에 자존감이 높고 체험활동을 많이했던 집단은 공동체의식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독립변수로 투입된 데이터는 자존감 1차, 체험활동 1차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부분에서도 오타자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고, 참고문헌에 누락된 문헌들도 상당수 발견되는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공동체의식과 관련하여 4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고 하였는데, 4개의 문항은 “중학생의 민주시민연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한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즉, 이들 4개의 문항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라는 점이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자존감과 부모의 방임/학대,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측정도구에서는 어떤 문항들을 사용했는지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러한 문항들이 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독립변수로 투입된 변인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중2때의 공동체 의식을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이후인 중3과 고1로 성장하면서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설명변인을 찾기 위해 독립변수로 자존감, 또래애착, 체험활동은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방임과 학대, 학교적응, 지역 사회 인식은 2차년도 자료만 사용하였다. 그러다보니 연구결과에서 중2-중3-고1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식의 변화는 “중1때의 자존감”, “중2때의 학교적응”, “중1때의 체험활동”, “중2때의 지역사회 인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통계적 수치만을 놓고 보면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중2에서 중3으로갈때의 공동체의식, 그리고 중3에서 고1로 갈때의 공동체의식이 왜 하필 중1때의 자존감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까? 중2, 중3, 고1때의 자존감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가? 중2와 중3의 생활세계는 아주 다르고, 중3과 고1의 생활세계도 아주 다르다. 자존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또래애착도, 학교적

응정도도, 체험활동도, 지역사회인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년도의 패널데이터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기 보다는 동일변수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점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제안해본다.

여섯째, 논의 및 결론부분도 보다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논문에서는 종단적 변화의 예측변수로 초기값에는 어떤 어떤 변수가, 변화율에는 어떤 어떤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떤 어떤 변수이고, 초기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리고 변화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하다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들어 2차년도의 학교적응은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시사하는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중단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는 공부하는 시기라는 인식들 때문에 팬덤활동 등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 중 하나이다. 청소년들은 팬덤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우상화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활동을 통한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팬덤활동, 학교생활적응,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더욱이 중단 연구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한층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연구를 하신 두 분의 연구자께 감사합니다.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문제 선정에 대한 적절성이다. 연구자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1시기 팬덤활동은 중1시기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적응 초기와 변화에 영향”과 “중1시기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 초기와 변화의 관계에서 중1시기의 공동체 의식이 매개효과”이다. 토론자가 주목하는 것을 중1시기 팬덤활동의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빠른 문화의 변화 속에서 팬덤이라는 활동 또한 빠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1시기의 팬덤활동으로 중1, 2, 3 시기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즉, 빠른 팬덤활동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팬덤활동 측정도구에 관한 문제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 팬덤활동의 내용과 실제 측정된 문항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는 팬덤을 열광하고 추종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는 스타를 우상화하여 따르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측정이 이루어진 문항의 경우 열광 또는 추종 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홈페이지 방문이나, 메일쓰기, 댓글 달기 등은 청소년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패널리터를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를 통해 팬덤활동의 내용과 측정 문항간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팬덤활동의 영향인가? 오프라인 모임의 영향인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오프라인 팬덤활동 → 공동체의식 → 학교생활적응” 미치는 영향들을 밝히고 있고, 온라인 팬덤활동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팬덤활동을 목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모임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팬덤활동을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과 일반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 형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임의 목적과 모임자체 중에서 어떤 것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을 “집단이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여야 하듯이, 개인들도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세를 공동체 의식이라고 한다.” 결국 목적보다는 모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목적이 있는 모임이라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목적”때문 이냐 “모임”때문 이냐는 것이다. 만약 목적 때문 이라면 팬덤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모임 때문 이라면 오프라인 모임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오프라인 팬덤활동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연구자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에 관한 토론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실장)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공동체 의식은 좁게는 청소년기 학생,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정서·심리적 문제와 각종 일탈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에서 공표된 Post 2015 교육의제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국제 차원에서나 국가 수준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잘 포착한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에 관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문제제기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연구자들은 차별화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연구문제를 설계하였다. 연구자들은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이 중학교1학년에서 고등학교1학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탐색하였다. 무엇보다도 다층성장모형을 채택함으로써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과 영향요인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동 주제를 다룬 문헌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동 주제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와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된 특성을 갖추고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를 갖고 있다. 첫째,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 변화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연구자만의 시각/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 내지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 변화의 영향요인을 특정 이론적 렌즈를 통해 분석했었다면, 좀 더 독창적이며 학술적 기여 수준이 높은 논문의 산출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탐색한 공동체 의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특성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등으로 구분되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을 모두 모형에 투입하여 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각 영향요인은 특정한 이론적 입장 및 특정한 정책 방향과 연계되어 있기에, 분석에서 다른 요인을 고려는 하되 연구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연구의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제언은 연구문제 제안 및 모형설계와 선행연구 분석 간의 연계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모형에 투입될 변인 선정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한 선행연구 분석은 합리적 수준의 체계성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세 번째 연구문제와 모형에 투입된 일부 변인은 문헌에 근거한 이론적 지지가 없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3 :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이론적 뒷받침이나 교육 현장 문제와 연계하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다층성장모형이 갖춘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된 연구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동 연구문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서론에서 이러한 문제 탐색이 필요한 배경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문제 3을 탐색하기 위해 모형에 투입한 시간의존적 변수 중 일부(예, 교사관계, 학교규칙, 지역인식 등)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도 모형 투입의 근거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분석결과도 이러한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연구모형 2의 분석결과를 보면, 교사관계와 학교규칙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이에 더하여 연구자는 이러한 이례적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를 생략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한점은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다층성장모형을 사용한 논문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주제 설정이나 분석모형 투입 변수 선택이 이론(만약 기존 문헌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경우, 연구자의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설혹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일반화가 어렵고 따라서 연구결과의 축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가지 추가적 질문/의견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공동체 의식이 문헌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자가 소개한 관련 문헌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개념은 구성원의 소속감, 구성원 간 유사성 인식, 상호의존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담긴 내용은 도움주기, 봉사활동, 기부 및 환경보존으로 인용한 문헌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은 관계적, 심리적 측면이 강한데 변수는 행동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세계시민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변수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데이터 산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정책연구원 측에는 보다 포괄적인 공동체 의식 측정 문항을 제안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제한점을 논문에 반영하기를 권해 본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일부 연구결과는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본 연구는 많은 시간을 체험활동시간에 투자하는 학생일수록,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지킬수록, 지역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사실과 체험활동시간과 교우관계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이들 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식습득보다는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학생지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시체계적관점에서의 청소년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옥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1. 연구의 의의

청소년기에 성인매체에 노출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는 매체가 생긴 이래로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실증적인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청소년의 성인매체 이용을 탐구하고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성인매체에 접근하는 유용하고 용이한 매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성인매체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출될 우려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패널을 이용한 이 연구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2.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인용하여 청소년의 긴장요인이 우울과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결론적으로는 우울이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스마트폰이 매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긴장이론은 반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이 반사회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성인매체를 접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출을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의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게임처럼 호기심과 재미를 주는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게임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생각하신다면, 이 경우에도 성인매체 중독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몰입이라고 하면 반사회적인 경우보다 친사회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반긴장이론을 인용하여 우울이 성인매체 몰입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하지 않는 건강한 청소년도 성인매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 논의를 좀 더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논의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3. 방법론

이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매우 정교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적인 조사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의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도입하여 특정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론 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검정방법의 적절한 사용은 적절한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토론자가 느끼기에 연구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하여 청소년 패널데이터의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는 잘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문에서는 이 데이터들의 외적 타당도를 확인하게에는 제시된 자료가 미비해 보입니다. 즉, 이론 및 연구문제 부분에서 많은 개념들을 제시하였습시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는지 예시가 많지 않아 실제로 원하는 개념을 측정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패널데이터라는 2차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측정항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론 논의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인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하는 부분과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4. 결론

이 연구는 서론에서 첫째, 청소년의 성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미시체계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폰이 성인매체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셋째,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적 방안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논문이라 여기에서 밝힌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후의 논의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꼭 이루시기를 빕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부모, 또래,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탐색”에 대한 토론문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하며, 이 유형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 애착,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시의 적절한 연구입니다. 특히 대학교 입시가 청소년의 발달에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관련해서 볼 때,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높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두고서 토론자는 본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자에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형에 대한 의견입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 의존 집단을 고위험 의존 집단, 저위험 의존 집단, 잠재적 의존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이 집단의 특성(예: 개인, 가족, 학교 특성 등)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작업을 추가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 가족, 학교 특성 전반이 휴대전화 의존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측면에서는 실천 현장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변수는 몰라도 본 연구 설계와 관련해서는 젠더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본 연구 설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휴대전화 의존도 척도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휴대전화 의존 내용(예: 게임, 카톡, 음악,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척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류된 유형의 명명화 작업 때 이 유형의 성격이 좀 더 자세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위험 의존 집단의 경우 휴대전화 의존을 보이지 않는 집단인지 아니면 고위험과 저위험은 모두 의존 집단인데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변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청소년 자녀의 경우 학교 및 또래의 영향이 크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부모 관련 변수나 가족 관련 변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또래 애착과 같은 구조 변수로 보면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애착만으로 휴대전화 의존도를 살펴보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인, 가족, 학교 범주에서 본다면, 학교 관련 변수(예: 학업유능성, 교사관계 등)도 선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연구결론 및 논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긴 하였지만, 연구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
의 특성이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 압박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
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주는 의미는 클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현재 논의에
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연구의 의의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논의점에도 불구하고, 부모-청소년자녀관계 향상 프
로그램이나 청소년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구 관여의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임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이 연구는 고교시기의 학업태도에 대한 휴대폰 사용의 부정적 영향력을 확인해볼 뿐 아니라, 학습태도에 대한 휴대폰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가구배경과 부모의 관여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한 연구로,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주제의식을 지닌 연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 연구주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한 연구방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들어 하나씩 열거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연구의 주제는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로 어찌보면 상당히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단순한 주제에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연구자는 종속변수인 ‘학습태도’를 LPA분석을 통해 굳이 4개의 범주로 나누는 작업을 하며 연구분석의 5할을 할애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어야 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설명이 가능한 큰 범주의 변량값을 단지 4개의 값으로 줄이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오히려 줄여나간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 값을 줄여, 즉 학습태도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속변수를 집단으로 묶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서도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분석의 타당한 근거 내지는 이유를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LPA 분석방법이 굳이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방법이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 이 연구의 연구목표는 ‘학업에 대한 휴대폰의 부정적 영향력을 확인(첫째에서 연구분석방법의 부적절성에 대해 이미 기술)’하며, 더 나아가 가정배경 및 부모관여의 완화(mitigating)효과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완화효과가 의심스러운 결과에 대해 완화효과가 있다고 그 결과를 해석하며 ‘가구관여가 휴대폰의 부적효과를 완화하였다.’고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LPA2집단(중간학습_성취가치)은 가구의 관여 변수들이 투입되며 투입되기 전의 부모이 휴대폰 사용과 오락적 휴대폰 사용의 효과 및 유의성이 감소되어 가구의 관여가 휴대폰 활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유의성의 감소만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과 해석의 비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ES 값을 제시하여 감소되는 효과크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연구는 휴대폰 사용의 완화효과로서의 부모관련 요인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근거로 Bourdieu의 문화자본을 들고 있습니다. 관련연구들로는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개방적인 소통을 하고, 학습에 같이 참여하는가’(p. 3)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가구배정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KCYPS에서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방임’ 관련 문항, ‘사교육 시간’, ‘사교육 숙제시간’, ‘기타 공부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자본이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가치를 두고 이를 전수하려고 하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사교육 시간은 이해가 되나 사교육 숙제시간과 기타 공부시간은 과연 가구관계 변인을 구성하기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이 꼭 부모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을 들여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의 문화변수로는 ‘부모의 교육기대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가정 규칙이나 직접적인 개입’ 등의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연구자는 패널데이터에서 조사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측정 문항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구인)변수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각 구인개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각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나 변수구성에 대한 설명이 없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통계적 분석방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몇 부분이 발견됩니다. 1) 결측치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변인들에 결측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하신 것인가요? 2) <표 5>의 ANOVA 분석은 종속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TYPE I error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사후검정 또한 안되어 있어 어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3) 23 페이지에 ANOVA의 한계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은 맞는 진술이 아닙니다. 4) 다항로지 해석 부분에서 3번째 문단의 분석결과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연구자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3개의 집단(LPA2, LPA3, LPA4)은 각각 LPA1집단과 비교된 것으로 이 3개의 집단간 소속확률을 비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집단의 기준은 LPA1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6)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행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 <그림 2>의 ‘학습태도 18개 지표문항에 대한 최적 잠재집단(4집단)의 분포’ 그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행동통제 문항 4번과 5번은 역코딩을 한 문항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행동통제 부분에 <그림 2>와 같은 파일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발달궤적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에 대한 토론

오승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부교수)

이 논문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 온라인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유형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 목적이다. 청소년 비행이 오프라인에서만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는 실정이거니와 연구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을 통합하여 청소년 비행을 유형화 한다”(2쪽)는 연구 목적 기술로부터 이 논문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 먼저 지면을 빌어서 공동 발표자이신 최지영 교수님과 김재철 교수님 두 분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논문 발내용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점과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문의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 문제와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과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문제와 관련 변인 선정

연구자들께서는 서론의 첫 문단에서 “이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한 두 가지 장면에서 청소년 비행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2쪽). 그래서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발달궤적의 관련성을 탐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연구문제와 연구결과를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 각각의 비행 유형을 탐색하고 있을 뿐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의 관계를 면밀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한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 개인의 심리특성, 또래관계특성, 가족관계특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행 유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 있는데 왜 이 연구문제를 선정했고, 개인, 심리, 또래, 가족관계 특성에서 해당 변인들을 보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선정한 독립변인들 중에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변인들 예컨대, 진로정체감도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이론적 배경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기술했지만 연구문제에 독립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변인들 즉, 성적긴장, 인터넷사용시간, 우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문제에서 다루는 독립, 종속변인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추출되어야 한다.

2. 잠재계층 유형 선정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을 4가지로 산출하

고, 그 유형들을 ‘비행 유지군’, ‘비비행 유지군’, ‘점진적 비행군’, ‘점진적 비비행군’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이 4가지 잠재계층 유형 선정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잠재계층 유형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 청소년 비행의 잠재계층 유형 선정

연구자	잠재계층 유형(청소년 비행)				
정익중 (2009)	만성형	중단형	후발형	무비행	저비행 지속형
최지영 외 (2015)	비행 유지군	점진적 비비행군	점진적 비행군	비비행 유지군	

위의 〈표 1〉을 참조하면 기존에 5가지 잠재계층 유형 중에서 ‘무비행’과 ‘저비행 지속형’을 비비행 유지군으로 통합하여 4가지로 구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오프라인 비행에서 척도에서 원점수를 계산할 때, 14)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라는 문항의 합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의 점수를 계산하여 ‘비행군’과 ‘비비행’을 구분하는 점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표 5〉 잠재계층별 학년에 따른 오프라인 비행 평균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점진적 비행군’의 경우 고2 때 중1부터 고 1까지 완만한 변화를 보이다가 고 2때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것을 ‘점진적 비행군’이라고 일컫는 것이 맞는가? 또한 ‘비행 유지군’에서도 고2에서 갑자기 오프라인 비행 평균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점진적 비비행군’에서도 중 3 시점에서 오프라인 비행 평균이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인가? 점진적 비행군에서 중3 시점에서 오프라인 비행 평균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컨대, 4가지 잠재계층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중3, 고2 시기에 오프라인 비행 평균 점수가 급변화하는 것 때문에 잠재계층 유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3. 오프라인 비행 변화궤적에서 영향 변인 탐색

오프라인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중에서 비행 친구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비행군’, ‘점진적 비비행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비행 친구수가 많으면 ‘비비행 유지군’보다 ‘비행군’과 ‘점진적 비행군’에 속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격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점진적 비비행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사유가 무엇인가? 중3패널 데이터에서 비행 점수가 높게 나온 점이나 점진적 비비행군이라는 명명이 잘못되었던 것일 수 있겠다.

4. 온라인 비행 변화궤적에서 영향 변인 탐색

학년에 따른 온라인 비행 평균 분석 결과를 보면, 고2 시점에서 ‘비행 유지군’이 비행 점수가 낮아지다가 고2 시점에서 급상승하여 비행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점진적 비행군’에서 고1 시점에 비행 점수가 낮아지다가 고2에서 급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부모 양육태도에서 학대가 심할수록 ‘비행 유지군’이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반대로 부모가 학대양육방식 유형을 가질수록 ‘비행 유지군’보다 ‘비비행 유지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비행 친구수가 많을수록 점진적 비비행군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기타사항

- 애당초 이 연구의 목적으로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에 대해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측정도구에서 개인의 심리특성, 또래관계특성, 가족관계특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연계 고리를 찾기 어렵다.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의 유형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량을 확인 차원에서 자아존중감, 공격성, 진로정체감 변인이 개인역량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아존중감, 공격성, 진로정체감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행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의 정도를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우울이 사이버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현실비행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보인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행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비행 유지군’을 제외하고 ‘비행 유지군’, ‘점진적 비행군’, ‘점진적 비비행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진로조망에 따른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행동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배천웅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이 연구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과정, 특히 일탈행동의 중요한 원인인 역기능적 정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을 매개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조망을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중학교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조망이 청소년의 역기능적 정서와 일탈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2에서 고1까지 역기능적 정서의 평균 초기치의 수준이 높아지고 초기치의 변화율도 역기능적 정서수준의 높았던 청소년이 그 이후에도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진로조망을 시간 독립적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조망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의 초기치가 낮게 나타났지만 진로조망이 역기능적 정서의 변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역기능적 정서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우울의 평균치는 유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격성, 사회적 위축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때 진로조망이 변화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학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수준은 초기치 전체평균과 선형변화율의 전체평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진로조망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즉 학년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으며, 진로조망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과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목적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답을 찾기 위해 수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다보니 연구의 설계과정에서 이론적인 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검증을 위해 사용된 자료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적합하거나 타당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자도 제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비행행동의 수준을 비행의 횟수를 단순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행행동의 조사항목으로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등 비교적 가벼운 행동

에서 성관계, 성폭행 등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비행의 수준을 조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밖에 비행행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방법은 비행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 규범과 어긋난 정도, 혹은 교정가능성의 정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여러 가지 비행행동의 횟수를 합산하는 방식이 과연 청소년 비행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행행동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이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단일 성격으로 개념화하고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비행은 그 종류나 원인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담배피우기’, ‘협박하기’, ‘훔치기’, ‘성폭행’ 등은 모두 비행 행동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행동을 모두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역기능적 정서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청소년 비행의 종류가 다양한만큼 그 원인도 다양하므로 청소년 비행을 단일한 항목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공통된 특성으로 유형화하여 몇 가지 종류로 나눈 후, 역기능적 정서나 진로조망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행동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런데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행동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변수로 취급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이 어떤 점에서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이해되지 않는다.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행동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비행행동이 변화하는 것이 연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전에 이러한 검증이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기능적 정서나 비행 행동 모두 내재적으로 변화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넷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조망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연구에서는 진로조망을 “청소년기에 잠정적으로 희망 직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설계한 대로 생활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미래조망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미래에 대한 포부, 진로정체감, 진로효능감, 미래의 성취에 대한 확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진로조망을 두 요인, 즉 진로정체감과 삶의 목표에 대한 문항에 대한 반응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진로정체감을 진로조망의 하위요소로서 취급하는 것은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에 합치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삶의 목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을 살펴보면, 연구자가 설명한 진로조망의 개념에는 합치하지 않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진로정체감과 삶의 목표에 대한 반응을 합산하여 진로조망을 측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로부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에 이르기까지 이 문항들은 삶의 목표와 연관된 가치관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진로정체감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수치를 합산하여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삶의 목표에 제시된 문항에 대한 개인적 응답 수치의 합산의 결과는 진로조망의 어떤 특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치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차라리 진로조망이라는 개념보다는 진로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역기능적 정서로 설정한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진로정체감이

역기능적 정서와 비행행동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 특히 역기능적 정서가 비행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대해 반박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행동을 연구하는 경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역기능적 정서 못지않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 청소년의 충동성이나 호기심, 인지적, 도덕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다. 청소년기의 비행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진 특별한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특성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소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최초 비행 요인에 대한 다층생존분석 연구’ 에 대하여

임성택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청소년 비행’은 다양한 성질의 청소년행동들을 묶어서 말하는 기성세대의 인공적 범주에 해당된다. 그것은 행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된 동질적 행동의 범주라기보다 규범적 차원에서 기성세대가 규정한 문제행동의 범주체계이다. 문제의 성질이 다르면,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를 것이며, 그에 대한 처방도 달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을 통찰하여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 비행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발생(최초비행)의 종단적 추이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층적(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한층 더 개선한 연구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의도에 맞추어 생성한 데이터가 아닌 타 기관에서 정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

우선 6개의 청소년 문제행동을 ‘지위비행’ 차원에서 고려하였으나, 이 행동목록들 역시 다차원적으로 재분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속성상 담배와 술의 경우에는 약물비행, 놀림과 왕따는 폭력비행, 가출과 결석은 회피비행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연구는 6가지 비행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지금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문제행동들을 속성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행동의 속성이 잘 분류되면, 그것에 작용하는 요인도 다를 것이고, 종단적 추이도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예방과 대책도 더 구체적일 수 있다. 병의 성질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하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성질에 따라 예방과 대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의 경우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비행이 두 가지 있었는데, 놀림과 왕따가 그것이었다. 이 두 가지 비행은 다른 비행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들 비행의 공통점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폭력비행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러한 공통된 성질이 유사한 종단적 추이를 나타내게 했을 수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담배와 술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비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그 두 비행이 모두 약물비행에 속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결석의 경우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발생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술과 담배에 비해서는 그 계수의 크기가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6개 청소년 비행의 종단적 추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이 연구에 포함된 6가지 비행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6개의 청소년비행을 각각 다루고 논의하기 보다는 약물비행(담배와 술), 폭력비행(놀림과 왕따), 회피비행(결석과 가출)으로 분류하여 분석 논의하게 되면 보다

의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의도대로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청소년 비행관련변인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설명력 높은 것들로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어진 자료에 포함된 변수들만을 고려하다 보니 분석의 체계성에 비해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보다 의의 있는 예언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예언변인들(시간, 성취가치, 주의집중 어려움, 성적 만족도, 부모의 방임) 중에서도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과 관련하여 의의 있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대체로 성취가치와 성적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예언변인들은 청소년 비행에 음의 영향력이 있음이 입증된 반면, 주의집중 어려움이나 부모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예언변인들은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성취가치가 음주비행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보인 것과, 성적만족도가 가출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보인 것(표 3 참조)은 특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성취가치가 높고 성적에 만족하면 비행의 정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음주와 가출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음주를 가능성이 크고,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음주 비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특기할만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개진하지 않았다. 또한 표3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의 영향), 17페이지 해석부분에서 성적만족도는 모든 비행 유형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연구결과 역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들은 중요한 것이어서 단순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그 비중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식과 다른 연구결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난점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균형된 논의가 요구된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비행의 경우에는 비행의 속성상 그 예언변인의 영향력이 다른 비행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이라는 중요한 예언변인이 다루어졌고, 부모의 방임 수준별로 비행의 생존확률과 위험도가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토론자는 이 점과 관련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변수는 부모의 구성 형태에 따라 가족의 구조를 분류한 것이다. 방임이라는 것은 구조적 결함보다는 기능적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유형이 반드시 방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현대와 같이 가족의 구조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양친부모를 두지 않은 것이 방임으로 표현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방임수준을 ‘친모와 새아버지’를 중수준 그룹으로, ‘친부와 새어머니’를 ‘모두 안 계심과’ 더불어 하수준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도 분류의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변수를 부와 모로 나누어 생부(혹은 생모)가 있는 경우, 새아버지(새어머니)가 있는 경우, (부 혹은 모가)없는 경우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구분의 타당성과 더불어 실제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와 모의 영향력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부와 모의 조합보다는 부 그리고 모를 각각 독립변수로 고려함이 더 좋을 듯하다.

주어진 종단자료를 분석하는 한계를 넘어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중단적 추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의도가 자유롭게 반영된 관련변인들을 설정하여 자료를 생성하는 것도 이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이 연구에서 발견된 청소년 비행관련 예언변인들은 이론적 가치는 있지만, 실제적인 함의는 다소 제한적이다. 예컨대, 가족구조의 결손과 성적 만족도 등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것들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그것들(예언변인)을 변경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론적 예언변인으로 의의가 있으면서도 그것에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변인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논의가 보다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체험활동, 사회성적 및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에 체험활동, 교과학습, 공동체 의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도와 관련하여 공동체 의식이 배타성과 포용성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을 함께 탐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시도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체험활동이나 교과학습과 같은 통제(촉진) 가능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적 측면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의 관계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은 공동체 의식이다. 다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연구에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집합의식,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노력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분석 결과의 해석을 다소 어렵게 한다. 분석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다른 문화의 수용에 도움이 되는가를 규명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속감이나 집합의식은 자민족 정체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쟁점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하다.

○ 공동체 의식 변수 구성의 적절성

공동체 의식 변수의 구성 문항이 공동체 의식을 충분히 나타내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변수를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공동체”보다는 “배려”나 “봉사”에 대한 의식에 가까워보인다. 이런 문항들이 공동체 의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동체 의식을 충분하게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 의식 변수는 “체험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고, 이런 측면이 분석 결과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사회성적 변수의 투입 이유의 적절성

사회성적 변수는 “지난 학기동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는가”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경쟁적 또는 상대적 의미에서의 성적 정보가 이 분석 모형에서 적절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변수는 공동체 의식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오히려 “공동체성”과 관련된 교과학습의 경험을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면에서 사회성적 변수의 의미와 투입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성적 변수의 필요성은 주로 사회과 학습이 글로벌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 세계화 등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세계 시민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공동체 의식이 동일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어떤 사람이 세계 무대에서 편견없이 활동하는 것과 자신의 사회에 이질적 문화를 도입하고 수용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의식을 갖고 국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도 자국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두 용어가 이 연구에서 양립 가능한 것인지,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데이터 정보의 충분한 활용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는 종단 성격의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의 자료만 사용함으로써 전체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소한 2시점 이상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사회성적과 공동체의식에 변화가 있는 청소년이 다문화 수용에도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를 밝힌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 체험활동, 사회과 학습 등의 강화가 공동체 의식 향상을 매개로 다른 문화의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별도의 다른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이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도전적인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심층적인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팬덤 활동 변화의 잠재계층 도출과 영향요인 검증」 토론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이 연구는 청소년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팬덤 현상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물론 이 연구가 청소년 팬덤 현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5개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팬덤 활동의 유형과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패널 학술대회의 취지에 맞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청소년 팬덤 활동 관련 연구가 주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청소년들의 팬덤 활동 변화 패턴,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들의 인과성을 구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5개년간의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팬덤 활동의 변화추이를 유형화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5개년도 팬덤 활동에 대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실시하였으며, 각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팬덤 활동에는 고수준유지, 저수준유지, 감소, 증가 4개의 패턴이 있으며, 팬덤 활동 패턴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자존감, 성취가치, 부모의 방임정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이다.

이 연구에서 치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구결과, 즉, 청소년 팬덤 활동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 및 패턴 도출, 그리고 자녀의 팬덤 활동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등은 관련 기존연구의 논지들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분석결과들은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반적 논의를 이 분야 연구에서 준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견 아쉬운 부분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팬덤 활동의 범주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좀더 단순히 표현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이 있으면 다 팬덤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들의 분석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우문일 수도 있으나, 일정 스코어를 기준으로 팬덤 활동 집단과 비활동 집단으로 구분했다면 패턴이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혹은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적으로 감지하고 있던 활동 패턴과 영

향 요인에 대해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명확히 했으나,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팬덤 활동의 특징들을 확인한 데 그친 감이 있다. 그 반면에 “친구 요인 중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은 학생 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팬덤 활동의 참여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논의와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상식적 논의나 기존 연구에서의 논지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논지들과 다른 분석결과들에 대해서는 보다 상술해서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인다면, 사소한 착오로 보이지만 일부 종단과 횡단의 용어나 문맥상 혼동(원고6쪽 등)도 바로잡으면 보다 독자들에게 연구 논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결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팬덤 활동 패턴과 변화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지금 청소년문화에서 뚜렷한 특징이 된 팬덤 현상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기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 학교적응, 삶의 만족의 종단연구: 학교적응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토론편

김선아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때의 자신의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최근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았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도 연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분석했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종단자료의 강점을 활용해서 중3부터 고2까지 3년간의 시간의 변화를 통해 학교적응이나 삶의 만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변화에 대해서도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라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첫째, 연구의 필요성에서 여러 가지내용을 제시하나 ‘학교적응’이 설정된 가정 안에서 매개효과를 준다고 보는 배경이나 왜 그것이 체험활동만족,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변수로 설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참여수준’이라는 변수가 포함되는데 청소년 체험활동만족이 주는 중요성과 이론배경만큼 서론이나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포함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질적인 만족 외에 양적인 것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포함시킨 것 같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배경이나 특히 학교적응이나 삶의 만족과의 관계성도 모호하게 나타나있어 보완을 하면 좋을듯합니다. 측정도구도 활동의 합산인데 유의미한 측정도구인지에 대한 점도 살펴보아야한다고 봅니다.

셋째, 시간을 다룬 잠재성장모형인 만큼 각 연도의 변화와 함께 독립변인이 5차년도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하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초기 값과의 관계나, 변화에 대한 영향이 왜 가정되었는지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예로, 3차년도의 참여수준이 5차년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결과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가에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넷째, 결과분석의 중간쯤에 체험만족이 높고 낮은 학생, 참여수준이 높고 낮은 학생을 그래프로 분석해서 설명하는데 그와 관련된 결과수치의 표가 포함이 된다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고/저로 나눈 기준이나 각 대상의 변화율의 유의미함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분석과는 약간 다른 설명이라 독자가 헷갈릴 수가 있어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섯째, 결과내용에서 ‘체험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변화’에 미치는 부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듯합니다. 비록 학교적응변화가 ‘체험활동만족’의 사이에서 매개로 ‘삶의 만족

변화'와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나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부각이 안된 듯합니다. 3차년도의 체험활동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4차년도와 5차년도의 만족도도 역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지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더 흥미로운 연구결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은 떨어져도 학생의 학교적응은 증가하니 체험활동의 증가로 학교적응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더 중점이 된다면 각 발달단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과 관계를 더 살펴보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좋은 연구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체험활동과 수준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행동 감소 효과 분석”에 관한 토론

박일수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고, 2011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중학교 1학년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도입된 2011학년을 기점으로,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분석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1) 연도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 시간 증가, 2) 체험활동의 증가와 학교폭력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 3) 교우관계의 반사회성이었다. 문제 행동 감소와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론] 창의적 체험활동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학교 교육활동은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2대 편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교과 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문제 행동 및 학교폭력의 감소, 교우관계의 반사회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들 변인에 대한 성과 또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학교폭력, 문제행동, 반사회성]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예산 투입 및 정책이 실패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과잉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연구자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소질 계발, 집단 생활 체험, 인성 계발 등 다양한 교육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인성교육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토론자는 그 관련성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교폭력 및 감소를 위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4대 영역(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이 중의 극히 일부 영역만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및 문제 행동 감소와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 역시 이론적 배경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4대 영역을 설명하고, 단위 학교의 환경에 따라 각 영역 별 편성 시간이 달라지게 운영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3) 연구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체험활동을 동의어로 사용한 것 같다. [이론적 배경-2절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문제 행동]을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는 ‘체험’활동과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3. 분석방법]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분석방법의 2절 변수]를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 산정은 단위 학교에서 운영한 총 수업 시수라기 보다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중에서 ‘체험’과 관련있는 활동 시수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진로활동의 연간 시간은 직업 체험 활동에 관한 시간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글에서는 체험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동의어로 사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 연구자의 논문 [표 2]의 기술 통계를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전체 평균 수업 시수 [2011-2013학년도 평균 시수 합계 결과]가 약 86시간으로, 중학교 1-3학년군 총 306시간의 28%에 해당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체험’과 관련있는 활동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자가 관심있는 ‘체험’중심의 활동이 중 1, 중 2에서는 22시간이었으나, 중3에서 39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토론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스포츠 클럽 활동[동아리 활동으로 편성] 수업 시수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2013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균 수업 시수가 39.30으로 제시되었는데, 교육부 지침 및 단위 학교의 운영 현황을 보면, 최소 68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패널데이터 자료 수집 상 발생한 오류인지 알 수 없으나, 창의적 체험 활동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부 및 단위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왜 이런 결과가 제시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참고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제시된 창의적 체험 활동의 편성 시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창의적 체험 활동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침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운영의 주요 사항>

1. 2011학년도 중학교 1학년에 도입. 중학교 3개 학년간 총 306시간 운영
2. 2012년 7월 9일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 1) 2012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한다.
 -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2012. 7. 9)

표 2 ▶ 대청중학교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중학교 2학년) - 학교알림이 사이트

영역(연간)	1학기	2학기	비고
자율활동(29)	13(자치10, 적응3)	16(자치12, 적응4)	적응활동(7시간) 표준화1, 보건2, 안전1 진로체험2, 생명존중1
동아리활동(34)	17	17	
봉사활동(7)	3	4	
진로활동(32)	16	16	

표 3 ▶ 대청중학교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중학교 3학년) - 학교알림이 사이트

영역(연간)		1학기	2학기	비고
자율활동(27)		15	12	※ 2학년 진로활동과 보건활동은 전·후반 1, 2학기 교차로 진행함
동아리활동(34)		14	20	
봉사활동(7)		3	4	
스포츠클럽(34)		17	17	
진로활동(34)	1학년	17	17	
진로활동(17),보건활동(17)	2학년	17	17	
진로활동(스포츠클럽)(34)	3학년	17	17	

5) [4. 분석결과-3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행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반사회적 교우관계의 포함 여부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반사회적 교우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반사회적 교우관계가 비행 행동 친구 수를 의미하는 것인가?

6) 이 연구에서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통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적 교육관계와 문제행동 유발과 관련하여, 동아리 활동은 감소, 봉사활동은 촉발하였다. 또한 반사회적 교우관계 성향이 비행행위에 정적인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계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찾기 어렵다고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의 실제적인 유의미성(계수)이 적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 문제행동의 감소 및 유발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 유의미성은 적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제행동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7) 이 연구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다양한 목적 중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친다.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KCYPs)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토론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패널조사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들과는 다르게 패널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대개의 학술대회는 기존의 학문적 이론이고 경험적 연구에 터하여 새로운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 연구처럼 실용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측면의 논문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연구의 경향이 이론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을 다루는데서 확장하여, 실용적이고 방법적 지식을 다루는 데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순전히 방법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패널학술대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토론자도 정책 연구기관에서 패널데이터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십 수년 전에는 학위 논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이나 구축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당시 연구자는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제 아동·청소년패널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패널자료가 구축되고,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도 양질을 연구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횡단적 패널데이터는 기존의 횡단적 데이터가 갖지 못하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분석 데이터 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적 연구자들은 많은 패널데이터 가운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별도의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좀 더 단순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패널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 뿐 만 아니라 접근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의 연구 전반에 대한 기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2. 우려되는 점

기술 혁신에 의한 편의성이 증대되면 그 잇점과 함께 위험성도 함께 존재한다. 한 예로 도서관

을 전산화하면서 데이터의 입력이 잘못될 경우, 그 도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전산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이 프로그램도 연구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제한된 측면에서만 연구가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

첫째, 연구가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이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제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이나 범주 속에서 제공될 경우 쉽게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는 영역에 연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에 비해 특정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습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통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성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사용자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3.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며

현대 사회에서 기술혁신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상”이 곧 “현실”이 된다. 연구자가 제안하고 있는 접근법은 그런 상상을 현실화 시킨 거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자는 특정 통계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활용되는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보다는 웹 기반의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의 구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Stata나 Spss, Sa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변환 작업은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웹 상에서도 잘 구현될 수 있다.

현재 패널데이터의 수집과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자의 제안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켜 패널데이터의 활용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중단적 관계

이정립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을 개인 내적 변인과 환경 변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본 연구가 저널 투고 등으로 진행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몇 가지 사항을 다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행복과 삶의 만족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행복이 삶의 만족이라는 용어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용어 정의 및 두 용어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된 이후 논지가 전개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연구 제목에서는 삶의 만족이라 소개되어 있고,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변인에서도 삶의 만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서론에서는 행복이란 용어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는데 행복이 삶의 만족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리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변인 중 ‘또래 애착’ 설명에서 ‘소외’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자존감’ 변인 설명에서는 역산하여 사용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또래애착의 경우에는 ‘소외’는 역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보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검토자의 의견이다. 또래 애착과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래 애착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면 좋을 것이다.

넷째, 마찬가지로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삶의 만족에서 또래 애착 및 자존감으로 가는 교차지연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재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 삶의 만족이 성장에 대한 동기가 된다면, 사회적 관계의 원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동기가 되는 부분인데 본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타당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예

를 들면,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분석, 혹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였을 때 보일 수 있는 외적 행동은 무엇일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하였을 때 보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행동적 변인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변인들은 국외 선행연구들과 다른 변인 일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할 때, 다른 문화와 구분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보다 더 분명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일 주요한 화두이고 중요 변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삶의 만족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라는 측면이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 및 제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에 대한 토론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해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종단적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친구관계 등의 요인이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청소년들에게 또래 관계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는 무척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연유로 관련 분야 연구가 그간 다수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횡단자료 분석에 제한되어 있었음.

그에 비해 이 연구는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적절하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관한 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이론적 배경의 정리, 데이터 분석 및 결과에 바탕을 둔 논의까지 완성도 있게 구성된 논문으로 생각됨. 좋은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들에 감사드리며, 여기에서는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추후 논문을 보다 발전시키는 데 검토해볼만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함.

○ 측정 포인트 및 변화의 패턴 관련

-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 1차, 3차, 5차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음. 1차, 3차, 5차의 3개 시점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성장함수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1-5차까지 각각의 자료를 모두 측정 포인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선형 패턴까지 확인해볼 수 있음. 즉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화가 선형 변화를 보일지 비선형 변화를 보일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무조건부 모형 분석을 통해 변화의 패턴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5개년도 측정값을 각각 사용하지 않고 1차, 3차, 5차 3개년도 측정값만 따로 선별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 잠재변수 대신 측정변수 사용 관련

-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투입된 예측요인 가운데, 긍정적 양육방식을 제외하면 자아존중감, 부모-친구 관계 모두 다문항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변수가 아닌 측정변수로 투입되었음. 즉 자아존

중감, 부모-친구 관계를 측정한 여러 문항의 값을 평균 내어 측정변수로 투입하신 것으로 추측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강점 중 하나가 잠재변인 개념을 통해 측정오차를 반영한다는 데 있는데, 잠재변인으로 투입하지 않고 여러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측정문항으로 투입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 다집단 분석 결과 관련

- [표 12]에 제시된 ‘성별에 따른 조건모형 다집단분석’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로 각각의 경로에 대한 추정치는 제시되어 있지만, 각 경로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본문에서는 “변화율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라고 서술되어 있어, 각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할 소지가 있음. 다집단 분석의 경우, 어떠한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논문을 수정·보완하실 때 가능하다면 각 경로별로 차이검증 결과(C.R값)를 함께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논의 관련

- 이 연구는 ‘Ⅳ. 결론 및 논의’에서 분석 결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해석과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연구결과에 현실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보다 세밀한 해석과 논의를 제공해주신다면 연구의 완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부모와 친구사이의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천천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나, 여학생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은 남학생보다 초기치가 더 높고, 매년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해석과 부연 설명이 제시된다면 독자들이 이 연구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청소년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한 토론문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논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 중,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학업성취, 과제 지속성, 진로 성숙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성취 및 직업성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상술한 변인들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분석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토론자는 원고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몇 가지 의문점 또는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내용의 구분

논문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정리가 모두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서론의 대부분은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연구자들이 이 연구의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한 II장 연구방법 바로 앞 단락 말미에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 자아존중감 관련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 연구가 지닌 차별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서론 안에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를 함께 정리하는 것보다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다, 선행연구 정리도 다소 체계적이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론적 배경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자아존중감 결정요인을 범주화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의 변화 과정에서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이 변수들만 투입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에는 상술한 변인들 외에도 성별, 신체적 매력, 가족구조, 빈곤, 사회경제적 배경, 학업성취 등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많은 변수들 중, ‘왜 건강,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애착만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결국 연구의 필요성에서 적절한 문제제기와 관련 근거들이 보다 자세하게 제시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분: 긍정 자존감, 부정 자존감 용어 사용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 척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평가 문항과 부정적 자기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논문에서 이를 각기 다른 요인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토론자 역시 두 개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념의 형용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부정적 자기평가, 긍정적 자기평가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긍정 자존감’, ‘부정 자존감’이란 말은 어색하다. 연구자들 역시 “자아존중감 자체가 자신을 좋아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정도”라고 정리하고 있듯이, ‘부정 자존감’은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애매해진다. 때문에 오히려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결과 해석에 대한 보충

Ⅳ장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석한 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상담에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분석결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토론자에게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1 패널에서 교사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부정적 자기평가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물론, 중1 패널에서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긍정적 자기평가가 높아지고(자아존중감T1→교사관계T2→자아존중감T3/ 자아존중감T3→교사관계T4→자아존중감T5), 동시에 부정적 자기평가는 낮아지는 결과(자아존중감T3→교사관계T4→자아존중감T5)가 나타남)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긍정적 자기평가는 높아지는 반면 부정적 자기평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초1 패널에서 교사관계가 부정적 자기평가를 높인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또래애착 변수가 중1 패널(자아존중감T1→또래애착T1→자아존중감T3, 긍정적 자기평가를 높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또래애착 변수 효과의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초1 패널의 경우(자아존중감T3→또래애착T3→자아존중감T5), 또래애착 변수가 긍정적 자기평가를 낮추고, 부정적 자기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중1 패널의 경우(자아존중감T3→또래애착T3→자아존중감T5)에도 긍정적 자기평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지하다시피, 학창시절에는 부모만큼이나 의미 있는 존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또래애착 변수의 효과가 미미했고 효과의 방향 역시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형성되는 또래문화와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오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분석 결과와 그 시사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 두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초중고생의 수면시간이 부모양육태도의 매개를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본 논문은 초중고생의 수면시간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감독,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등의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수면시간과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로서 수면시간과 부모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보고 분석을 시도한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개효과를 보기 위하여 실시한 분석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판단을 위해 sobel test 까지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검증력을 제시함으로써 결과를 의미있게 하였다.

수면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동기로서 주요한 주제이며 개인적으로 본인의 관심영역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인도 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2013년 연구과제로서 수면시간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큰 호기심을 가지고 논문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으로 논문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서론을 먼저 살펴보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연구자의 의지는 나타나 있으나 분명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즉, 4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서두-초중고생의 수면시간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가 목적으로 비춰지기는 하나 그 뒤에 내용이 연결됨으로써 목적이 희석되는 느낌이었다.

또한 연구 변인 선정의 근거와 서술에 대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수면시간에 있어서의 부모양육태도의 매개 정도를 보는 것이라는 것이라면 서론의 이론적 근거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면시간 자체에 대한 언급이 많고 수면시간과 학교적응, 수면시간과 부모양육태도 관련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선행연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수면시간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작아 보이는데, 매개과정으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못하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자가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 유아의 정서성과 부모의 반응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와 수면시간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면 및 학교 적응에 어떠한 관계를 가질 지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수면 시간과 학교적응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동들의 기질, 정서와 목표지향적인 내적 변인과 더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청소년 패널의 요인 중에서 부모양육태도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근거를 밝히면 좋을 것 같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다고 하겠는데, 그러한 절차의 표기와 서술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분석방법으로서 매개가 되려면 ① 수면시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해야하고 ②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해야하며 ③ 수면시간과 부모양육태도가 함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수면시간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감소되거나(부분매개) 유의하지 않은지(완전 매개)등을 판단하게 된다. 보통 이러한 가설을 그림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로도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론에서 가설의 경로도식이던, 결과에 있어서 직접·간접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로도식이 제시되었다면 훨씬 매개효과의 이해가 용이했을 것이라 본다.

연구결과에서 대해 말씀드리면 수면시간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는 제시하였으나, 매개를 보기 위한 다른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결과는 생략되었으므로 좀 더 친절한 결과의 제시가 필요하다. 즉, 기술적 통계 제시 후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 또는 상관관계 행렬표 등을 제시했다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또한 수면시간과 학교적응,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적응, 수면시간과 부모양육태도 동시에 투입 시의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전체효과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각 연령대의 수면시간의 수준에 따라 다른 적응의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연구자의 연구모델에 있어서 수면시간을 중심으로 다집단분석 등을 통하여 수면시간에 따른 학교적응의 영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논의가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초등생의 수면시간과 학교적응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중고생의 수면시간과 학교적응과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수면시간과 부모양육태도에 있어서 수면시간이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하며 이를 아동효과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하였으나 이는 환경적 요인 또는 개인적 성향과의 분석 후 좀 더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인은 부모양육태도는 매개변인으로서 보다는 조절의 기능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논문이 수면시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본인은 토론자로서 이상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논문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수면시간과 아동들의 적응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방식과 매개변인과의 관련 연구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 본 연구의 의의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논문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인이나 노년에 관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삶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관계로 이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에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에 따라 아동이 삶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주로 미취학 아동에 한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큰 경험이 부모의 양육태도이기 때문에 발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경우 더 이상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학교 등의 사회경험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혹은 역설적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중요하기도 하다. 다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은 심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최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흔히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을 통해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활용한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은 네트워크로, 또래 애착은 신뢰와 관련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내의 부모 양육태도에서 확장하여 사회화를 거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의 교육 여건 및 상황에서 학교정책과 복지정책에 주는 함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본 연구의 세 번째 의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완성도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안

먼저 본 연구의 질문을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전반을 살펴볼 때 본 연구자의 관심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이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 매개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연구질문은 고등학생의 부모양육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주체와 객체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연구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말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가족 내 청소년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 요인을 성(性)과 부모의 학력, 가구연간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은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패널에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다양한 변수(키, 몸무게, 학업형태, 질병유무, 성적, 학원 및 과외 시간, 형제자매 등)들이 있음에도 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도 있지만 부모의 고용상태가 가족 내 다른 형제자매의 영향 역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셋째, 모름이나 무응답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모름이나 무응답’을 ‘9’로 처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른 변인들을 리커트 척도로 쓰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등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모름이나 무응답’을 missing 처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논문의 문장 그대로를 이해했을 때 모름이나 무응답을 9로 처리했으면, 모름이나 무응답일 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missing 처리가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분석에 반영된 표본의 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총 2,351명 중 분석에 반영된 표본의 수가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양적 논문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서 누가 분석하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사소한 실수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권하고 싶다.

모쪼록 귀중한 논문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율성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각된 유능감을 매개로 청소년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에 대한 토론문

최새은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고 보고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에 관심을 두고 부모의 감독 및 통제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학업 유능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수행하신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연구의 완성도를 위해 토론자가 제기하는 몇 가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목에서 드러난 이 연구의 핵심어가 실제 연구의 내용을 반영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모의 감독과 통제를 통해 측정된 부모 양육태도를 ‘자율성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의 감독’이나 ‘부모의 모니터링’과 같은 개념은 어떠할지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각된 유능감’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측정한 것은 ‘학업적’ 유능감인만큼 ‘학업 유능감’임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경우에는 굳이 ‘지각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할 필요도 없어지리라 여겨집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척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부모의 감독과 부모의 통제를 측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통제’ 부분은 ‘과잉간섭’을 측정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통제가 과잉간섭으로만 측정되었다고 하면, 이미 부정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모의 감독과는 달리 부모의 통제가 유능감이나 삶의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당연해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자들께서 부모의 감독이나 통제를 두 가지의 차원으로 상정하고 영향관계를 보고자 한 것인지, 하나의 차원의 정도의 차이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모니터링이나 청소년기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제재행위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성(곡선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연구 모형의 매개변수로 상정하고 있는 지각된 유능감은 국영수과사의 주요 과목에 대해 본인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것이어서 성적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지각된 유능감’을 측정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국제비교 학업평가 등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감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승현 외, 2013). 이러한 유능감의 감소는 차후에 학업성취의 감소는 물론 한국 학생들의 행복

과도 연결되므로 유능감을 함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성적과 무관하게 유능감이 낮은 경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측정도구를 통해서도 학업성취가 낮아서 유능감이 낮다고 파악되는 경우나 학업성취가 곧 유능감인 경우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인용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는 직접적으로 국제비교를 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국제비교 자료 중에서 어떠한 자료와 비교를 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과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재발생 학대유형과 관련요인” 토론

조미숙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와 마찬가지로 징후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동학대가 일시적 혹은 일회성 학대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아동학대 재발생의 학대유형과 관련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아동 발달단계별로 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학대유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 재 발생 과정에서 아동학대 대부분은 초기의 학대유형이 그대로 지속되지만, 학대가 재 발생할 때 새로운 학대유형이 추가되기도 하고 다른 학대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 제 연구에서, 가정폭력 특히 아내구타가 일어날 때 아동학대를 수반하는 경우가 59.75%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0.25%의 경우 아동학대를 수반하지 않고 아내구타만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대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고 섬세한 연구결과가 진행되면 될수록 문제해결 및 대안도 보다 정확해 질 수 있으며, 예측력 있는 다양한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연구는 매우 유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동들은 기능적으로 위압적이고 부정적인 학대분위기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왜곡 및 부정적인 신념을 학습 할 수도 있으며, 이들 학대 아동들은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 및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던 터라 두 분 교수님의 논문은 학문적인 동료의식마저 들게 한 재미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3개년)를 활용해 재발생 잠재집단 분류, 아동학대유형별 아이টেম확률 및 재발생유형별 관련요인 추출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진일보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자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접근 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소임을 다해야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재발생”이란 용어입니다. Walker(1979)의 경우, 학대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무력”으로 보고, 이 경우 적어도 폭력주기를 2회이상 겪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Scott(1974) 역시 폭력, 학대란 ‘ 공격적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하고 “반복적인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듯이 굳이 재 발생이란 용어를 사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성학대는 일회적이며 재발생 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임은 가해자의 양육행동이나 가정 환경이 단기간에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동일유형으로 재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e, Solomon, & Gelles, 2007; Fluke, Edwards, & Yuan, 1999)고 하셨는데...성학대는 일회적이며 재 발생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실증적 근거에 대해 치밀하게 보완되어야하며 성학대와 방임을 비교 또는 대비하여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 기존의 논의에 반박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성학대의 경우 피학대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견될 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은폐되는 경우가 높으며, 재 발생 비율이 높다는 보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셋째, 재발생 잠재집단분석 결과 4가지로 분류된 집단은 “**저발생형, 학대형, 방임형, 중복형으로 명명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로 베이지안 정보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과 조정된(adjusted) BIC가 **제일 작기 때문이며, 또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는 4개의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발생형, 학대형, 방임형, 중복형의 명명 또는 구분은 아동학대 기준·분류 스펙트럼선상에서 명쾌한 구분을 주지 못하기에 학문적으로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아동학대 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 부모, 가구, 사회 특성을 투입하여 다항로지트모형을 이용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셨는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에 **모든 변수를 통제한 후에 그 영향력을 측정해보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시도해 보았더라면, 보다 선명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와 방임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지역 사회환경, 제도적 환경 등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효율적인 예방·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에 대한 토론

박옥임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를 통해 수집된 중3~고2 대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연구목적과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잘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원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논문에서 다루어진 변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논문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을 방임에 대한 양육방식, 학대에 대한 양육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KCYPS)에는 방임과 학대 외에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등의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어 방임과 학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방임과 학대에 초점을 둔 이유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초점이 된 방임과 학대에 대한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에 있어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자녀간의 친밀성, 과도한 부모의 간섭과 비난(안명희와 신희수, 2012), 과잉기대, 과잉간섭, 엄격한 통제(김신경 외, 2014)를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중3~고2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큼니다.

셋째, 이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으므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잠재성장 매개모형(latent growth curve mediation model)은 종단적으로 매개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횡단적 매개모형에 비해

- 1) 예측변수, 매개변수 및 결과변수의 시간적 우선성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 2) 개인내의 변화와 횡단적 관계를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횡단적 매개효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MacKinnon, 2008). 이에 대한 추가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두 변수의 안정성과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ARCL) panel model)에 대한 부분을 그림과 경로계수 추정값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의 선행변수임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섯째,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종단적 관계에서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는데, 경합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분석만을 보여주었는데 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문헌

MacKinnon, D. P.(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